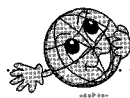


고용량 인터페론 '1형 유전자 C형 간염' 효과

- 오스트리아 연구진, 인터페론 용량별 C형 간염환자 373명 조사
 고용량 인터페론 유도요법은 리바비린(ribavirin) 투여와 병용하면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증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Hepatology' 지에 보고됐다
 오스트리아 간염 연구 그룹의 피터 페렌시 박사와 연구진은 진향적, 무작위 대조시험 방식으로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만성 C형 간염 환자 373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대상자들은 치료 첫 14주 동안 무작위로 나누어 3가지의 다른 인터페론 용량이 투여됐다.
 A군 130명은 1일 10MU 인트론 A(Intron A)를 2주간 투여하고 12주간 2일에 10MU를 투여했으며, B군 124명은 14주간 1일 5MU를 투여했고, C군 119명은 14주간 2일에 5MU를 투여했다. 이후 24주간 모두 2일에 5MU를 투여했고, 총 임상기간 중에 환자들은 1일 1-1.2그램의 리바비린(ribavirin)이 투여됐다. 치료 중에 환자들에게서 바이러스 청소율에는 차이가 없었고, 지속적인 반응도 세 군이 비슷했다.
 그러나 유전형에 따라 분석했을 때, 지속적인 반응은 1형 유전형(genotype one)인 경우 고용량 인터페론 유도요법을 한 환자보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 44.2퍼센트, B 28.6퍼센트, C 56.3퍼센트) 이와 대조적으로 3a형 환자에서는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1형 유전형 환자에게서 고용량 인터페론 유도요법은 인터페론과 리바비린 병용요법의 결과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유방암 환자 1년 생존율 '최고' -췌장암 '최저'

암 진단 후 1년간 생존율은 유방암이 가장 높고 췌장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암환자 1인당 진료비는 600만 원으로 이 중 73퍼센트인 435만 원이 보험급여비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이 21일 발표한 '1998~2000년 건강보험가입자 암 진료 현황'에 따르면 암으로 입원한 96,737명 중 67.6퍼센트인 65,357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유방암이 전체환자 5,591명 가운데 5,431명(97.1퍼센트)이 1년 동안 생명을 유지,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반면 췌장암은 2,536명 중 931명만 1년 동안 생명을 연장한 것으로 밝혀져, 가장 위험한 암으로 분석됐다.
 1년후 생존확률이 높은 암으로는 자궁경부암(93.5퍼센트), 피부암(92.1퍼센트), 전립선

암(89.4퍼센트), 난소암(88.2퍼센트), 방광암(86.5퍼센트), 후두암(85.4퍼센트), 신장암(83.9퍼센트), 요관암(82.7퍼센트), 입술구강암(81.4퍼센트)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폐암(48.2퍼센트), 간암(43퍼센트), 담낭암(40.4퍼센트), 식도암(48.5퍼센트)은 환자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나, 생존율이 낮았다 또한 발생빈도가 높은 위암의 생존율은 68.3퍼센트, 대장암은 80.9퍼센트였으며 백혈병은 61.2퍼센트가 1년 동안 생존했다

인터페론 α -2b, 만성 C형 감염증 예방



-독일연구진, 급성 C형 간염 환자조사결과 NEJM지 발표

급성 C형 간염에 인터페론 α -2b를 투여하는 것은 만성 감염증을 예방한다고 'NEJM'지에 보고됐다 독일의 엘마 재켈 박사와 연구진은 19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급성 C형 간염환자 44명을 대상으로 인터페론 α -2b의 만성 감염증 예방효과에 대해 연구했다

44명의 평균 연령은 36세, 25명은 여성, 19명은 남성이었는데 정맥주사 사용, 의료시술, 성적접촉 등을 통해 감염됐다 감염에서 간염 증상 발현까지는 평균 54일 걸렸으며, 치료는 감염된 지 평균 89일만에 시작됐다

환자들은 4주간 5백만 U의 인터페론 α -2b를 매일 피하주사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20주간 주 3회 피하주사했다.

연구 결과 치료 후와 추적조사기간 동안 43명의 환자에서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혈중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상 혈중 알라닌 아미노트랜스퍼레이즈(alanine aminotransferase) 농도를 나타냈다 평균 치료 3.2주 후에 C형 간염 바이러스 RNA가 혈중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단 1명만 부작용으로 인해 약물 투여를 중단했으며 나머지 환자에서는 내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화학 암치료법 '유효성' 속속 입증



-추계학회서 발표...국내 임상시험 성공 가능성 높아

직류전류(Direct Current)를 이용해 화학 작용을 일으켜 암 세포를 괴사시키는 전기화학 암 치료법이 최근 각종 임상실험을 통해 그 유효성이 속속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전기화학 암치료학회(학회장 가톨릭 의대 최일봉)는 최근 강남 성모병원에서 추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 전기화학 암 치료방법과 국내 임상 진행 내용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식약청의 임상시험 허가 하에 국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전기화학 암 치료 임상 시험의 진행사항이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가톨릭의대 최일봉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제주 한라 병원에서 약 40명의 말기 암 환자 대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아직 임상 실험 진행 중이라 결과를 선불리 예측하긴 힘들지만 외국 문헌과 유사한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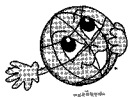
특히 최 교수는 “전기화학 암 치료법은 환자의 육체적 부담이 매우 적기때문에 기존 암 치료기술이 불가능했던 말기 암 환자의 경우에도 시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임상실험 집도의였던 가톨릭 의대 흉부외과 심성보 교수는 “저전하 직류전기의 종양에 대한 성장 억제효과는 종양의 무게 비교에 있어 전류를 가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시술을 한 모든 군에서 현격한 종양 억제 소견을 보였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또 “병리조직학적 소견에서 전류에 의한 손상을 받은 종양은 양성 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괴사를 나타냈다”고 소개했다

한라병원 구기수·김성수 박사도 간암 치료에 있어서 전기화학 치료 방법이 간암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도이며, 간암 치료방법의 선택폭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국내 업체 가운데 (주)솔고바이오메디칼 부설 솔고 의공학연구소(소장 안세영)는 그동안 중국을 비롯 여러 국가의 임상실험 예를 바탕으로 전기화학 암 치료 장비를 개발, 가톨릭의대 여의도 성모병원, 제주 한라병원과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다.



‘내시경적 초음파 단층촬영술’ 워크숍 성료

-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병센터...개의원 등 300여명 참석

순천향대병원 소화기병센터·소화기연구소(소장 심찬섭)는 최근 센터 및 임상교과관 강의실에서 ‘제11회 내시경적 초음파단층촬영술 및 복부초음파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나고야대학의 히루카 교수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과 개원의·봉직의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시경적초음파 단층 촬영술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와 실연,

그리고 진단이 애매한 초음파 영상진단 및 최신지견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루졌다.

또 국내외 연자들의 다양한 증례 실연(Live CCTV Demonstration)과 개원의를 위한 증례풀이, 강사와 참가자가 직접 실연하는 Hand-on Course, 비디오 강의 후 자유토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3차원 복부초음파기기 실연에서는 기존 기기보다 뛰어난 화상으로 간암과 주위 혈관을 뚜렷이 구분, 수술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앞으로 간암을 비롯한 소화기질환 치료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심찬섭 교수는 “이번 워크숍이 내시경적 초음파단층 촬영술과 복부초음파 진단의 보편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보다 수준높은 워크숍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다중항원 B형 간염백신’ 예방기능 우수



● 영국 연구진, 단일항원 기존 백신보다 면역반응 상승

새로운 다중 항원 B형 간염 백신은 단일 항원 백신보다 예방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Hepatology' 지에 보고됐다

영국 로열 프리의대와 노스 글래스고대학 병원의 연구진은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 방식으로 925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이전에 단일 항원 B형 간염 백신을 투여했을때 충분한 면역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균 5회의 접종을 했다

임상대상자는 새로운 B형 간염 백신(3개 항원) 20mcg나 현재 시판되는 단일 항원 간염 백신을 접종하고 재접종 후 8주 후에 B형 간염 표면 항체 수를 측정했다

그 결과 3개 항원 B형 간염 백신에 대해 3/4 이상에서 성공적인 항체 반응이 나타났고, 항체 역가의 평균 증가는 단일 항체 백신에 비해 통계적으로 우월했다

3개 항원 간염 백신은 평균 항체 역가를 100IU/L로 향상시켰으며, 이전에 면역 반응이 없었던 경우에 가장 효과적이었다

연구진은 “이전에 부적합한 면역반응이 나타난 환자에서 새로운 3개 항원 B형 간염 백신은 단일 항원 백신에 비해 면역반응률이 더 높고 평균 항체 역가도 상당히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